■ 민족문화연구 제88호(2020.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37-362.
http://doi.org/10.17948/kcs.2020..88.337

일제 강점기 정재 침탈 양상 고찰* **
—광교기생조합의 공진회(1915) 정재 창사를 중심으로—

강혜정(姜惠貞)***

목 차

1. 머리말
2. 자료 소개
3. 광교기생조합 공진회 정재 창사의 특성
4. 광교기생조합 공진회 정재 창사 발견의 의의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신문계(新文界)』제3권 9호(1915년 9월호)에 광교기생조합의 정재(呈才) 창사(唱詞)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학계에 보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창사의 제작자를 추정하고, 창사의 내용적 음악적 특성을 분석하여, 본 창사 발견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고려부터 조선조 내내 궁중에서 공연되었던 정재는 음악 반주에 맞춰 춤을 추다가 노래하는 歌舞樂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특히 정재 중에 부르는 노랫말(창사)은 춤이나 음악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재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논문 심사 과정을 거치며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자료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고려대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을 해 왔기에 주목된다. 경술국치 이후 정재는 더 이상 궁에서 연행되지 못했다. 정재를 담당했던 기생들은 기생조합을 결성하고 극장이나 요리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하였고, 정재는 대중예술로 변화해갔다. 1910년대에는 이렇게 연행 여건이 급변하면서 정재 공연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재사의 공백기로 남아 있었다.

1915년에는 일제의 식민통치5주년을 기념하는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始政五年記念 朝鮮物産共進會)가 경복궁에서 50일간 열렸는데, 광교조합과 다동조합은 매일 이곳에서 번갈아 가며 정재 공연을 하였다. 당시 『신문계』는 공진회 기념호를 발간하여 공진회에서 공연하였던 광교기생조합의 정재 창사를 수록하였다. 이 기사의 작성자는 '太華山人'이다. 이는 최영년의 필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아들 최찬식일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 『신문계』에는 총 10종목의 정재 창사가 수록되어 있다. 정재명을 보면 모두 전통적으로 궁에서 연행되었던 것이지만, 그 창사는 전혀 다르다. 즉 공진회를 앞두고 새로 만들어진 창사이다. 창사는 당대를 태평성세로 인식하고 일본 천황과 총독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친일 창사는 계락, 우락, 편 등 가곡창의 악곡에 얹어 부르게 하였다. 또한 '靈'으로 부르는 곡도 있는데 이는 〈靈山會上〉의 선율에 얹어 부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자료의 발견으로 인해 일제 강점기 정재 창사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그 단면을 파악하고, 대중문화로 변모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꾀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광교기생조합, 정재, 창사, 신문계, 공진회, 일제 강점기, 1910년대, 태화산인, 최영년(崔永年), 최찬식(崔瓚植).

1. 머리말

본고는 『신문계(新文界)』 제3권 9호(1915년 9월호)에 수록된 광교기생조합의 정재 창사를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창사의 제작자를 추정한 후, 창사의 내용적 음악적 특성을 분석하고, 본 창사 발견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고려와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까지 궁중에서 공연되었던 정재는 음악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다가 노래하는 歌舞樂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하지만 경술국치 이후 정재는 더 이상 궁에서 연행되지 못했다. 궁에서 나온 무

동들의 정재는 이왕직아악부를 통해 면면히 계승되었지만, 민간에서 활동한 기생들의 정재에 대한 정보는 매우 빈약하다. 관기 제도가 폐지된 후 기생들은 조합을 결성하고 극장이나 요리점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공연하며 정재는 대중예술로 변화해갔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1910년대의 정재에 대해서는 "이왕직아악부 외의 민간에서 정재가 어떻게 전승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처녀지로 남아"[1]있다고 하였다. "19세기 조선말에서 대한제국기를 거쳐 일제 강점기의 기간에 궁중 정재가 전승, 재현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감지"[2]된다고 하며 그 실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자료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다동기생조합의 일원이었던 李桂香의 홀기가 발견되며 일제강점기에 정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전통 정재 창사가 어떻게 계승되고 변용되었는지 그 일면이 밝혀졌다.[3] 악장은 언어적 요소로 특정한 의미와 효과를 직접적으로 창출한다.[4] 정재 중에 부르는 노래, 즉 정재 창사는 춤이나 음악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에 창사 연구는 당시 공연 예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새로 발견된 창사를 통해 당대 정재 공연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 홀기는 다동조합의 것으로 1910년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1910년대 서울에는 광교기생조합과 다동기생조합이 있었다. 광교조합은 유부기 조합으로 京妓가 중심이 되었고, 다동조합은 무부기 조합으로 鄕妓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진회에서도 이 두 조합이 매일 번갈아 가며 정재 공연을 하였다.[5] 즉 광교조합과 다동조합은 기존의 관기들이

1) 송방송, 「1910년대 정재의 전승 양상 : 기생 조합의 정재 공연을 중심으로」, 『국악원 논문집』 제17집, 국립국악원, 2004, 147면.
2) 임미선, 「조선말-일제강점기 궁중 정재의 전승과 재현」, 『국악원 논문집』 제23집, 국립국악원, 2011, 37면.
3) 강혜정, 「신자료 『리계향 칙 李桂香 홀긔』의 소지자 이계향에 대하여: 〈춘잉무〉 연행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5권,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험, 2019a; 「일제 강점기, 전통 정재 창사의 계승과 변용: 박순호 소장 『리계향 칙 李桂香 홀긔』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47집, 한국시가학회, 2019b.
4) 신경숙, 『조선 궁중의 노래, 악장』, 민속원, 2016, 18면.
5) 신창조합은 삼패 출신으로 이들과 다른 을종 예기로 분류되었다가, 1916년 5월에 기생조합으로

민간으로 나와 결성한 단체로 당시 서울의 문화를 이끌어 가던 두 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계향 홀기』를 통해 다동조합의 면모는 일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광교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1915년에 간행된 『신문계』 3권 9호에 광교조합의 정재 창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신문계』에는 「共進會 餘興의 古舞唱詞」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여기서의 '古舞'란 바로 조선 시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정재를 뜻하며 '고무창사'란 곧 정재 창사를 지칭한다. 기생들의 공진회 공연에 대해서는 『매일신보』를 비롯한 공진회 보고서를 통해 공연 시기, 횟수, 목록, 연행 공간 그리고 그 의의까지 밝힌 선행연구도 마련되어 있다.[6] 다동조합에 이어 광교조합의 창사까지 발견되어 이제 일제 강점기 변화된 정재의 실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2. 자료 소개

1) 『신문계』 1915년 9월호, 「共進會 餘興의 古舞 唱詞」.

광교기생조합의 공진회 정재 창사는 『신문계』 제3권 9호(1915년 9월호)에 「共進會 餘興의 古舞唱詞」라는 기사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신문계』는 1913년 4월부터 1917년 3월까지 만 4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총 48호가 간행된 잡지이다.[7] 일찍이 "일제의 앞잡이 내지 동조자로서의 입장에서 발간된 것"[8]이라 평가받았고, 이후의 연구에서도 역시 "무단 통치기 식민정책의 보완에 이 잡지의 간행 목적이 있었음"[9]을 명시하고 있다. 발행인이었던 다께우찌(竹內錄之助)가 거액의 자본을 대고, 최영년, 최찬식, 백대진 등 국내

인가를 받았다. 공진회 당시 신창조합은 야간 공연에 출연하였다.

6) 김영희,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의 기생의 춤 공연에 대한 연구」, 『국악원 논문집』 제29집, 국립국악원, 2014.

7) 『신문계』는 종간 후, 『반도시론』으로 轉身하여 1919년 4월까지 발행되었다. 2005년 청운 출판사에서 『신문계』를 영인하여 9권의 단행본으로 재출간하였다.

8) 김근수, 『한국잡지 개관 및 호별 목차집』, 한국학연구소, 1988, 116면.

9) 한기형, 「무단통치기 문화정책의 성격: 잡지 『신문계』를 통한 사례 분석」,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9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226면.

친일 성향의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하였다.[10] 한기형은 『신문계』의 발간 목적을 '식민지 현실에 대한 호도'[11]와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선전'[12]이라고 보았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기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수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共進會 餘興의 古舞唱詞」가 수록된 1915년 9월호는 '공진회 기념호'이다. 공진회는 '始政五年紀念 朝鮮物産共進會'를 말하는데,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에 걸쳐 50일 동안 경복궁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일종이다. 이각규에 의하면 '공진회'는 '박람회'보다 격이 낮고 박람회의 형식이 축소, 특화된 형태로 전시의 형식과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13]고 한다. 공진회는 한일병탄 이후 5년 동안 조선총독부의 통치로 조선의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였다. 데라우치 총독에 의해 1913년에 기획, 발의되었고, 1914년 3월에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 준비에 착수했으며, 총 483명의 인원이 파견되어 운영하였다.[14] 즉 공진회는 철저하게 일제의 정치적, 경제적 욕망에 따라 기획되고, 실현된 대규모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매일신보』와 『신문계』는 행사 기간 내내 대대적으로 공진회를 홍보하였다. 일간지였던 『매일신보』가 당일 혹은 다음 날의 행사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면, 월간지였던 『신문계』는 행사 이면의 소식까지 폭넓게 취재하여 심층 보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진회 기념호'를 표방한 『신문계』는 총독의 사진을 잡지 첫 머리에 두고, 조선물산공진회에 대한 감상을 비롯하여 공진회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공진회와 관련된 다양한 기사를 소개하는 가운데, 기생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공진회와 기생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공

10) 쌀 한 섬이 12원이던 당시 다께우찌가 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기형은 다께우찌 개인의 것이라기보다 한국의 식민지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에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한기형, 같은 글, 254면.
11) 같은 글, 227면.
12) 같은 글, 229면.
13) 이각규, 『한국의 근대 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186면.
14) 같은 책, 188-19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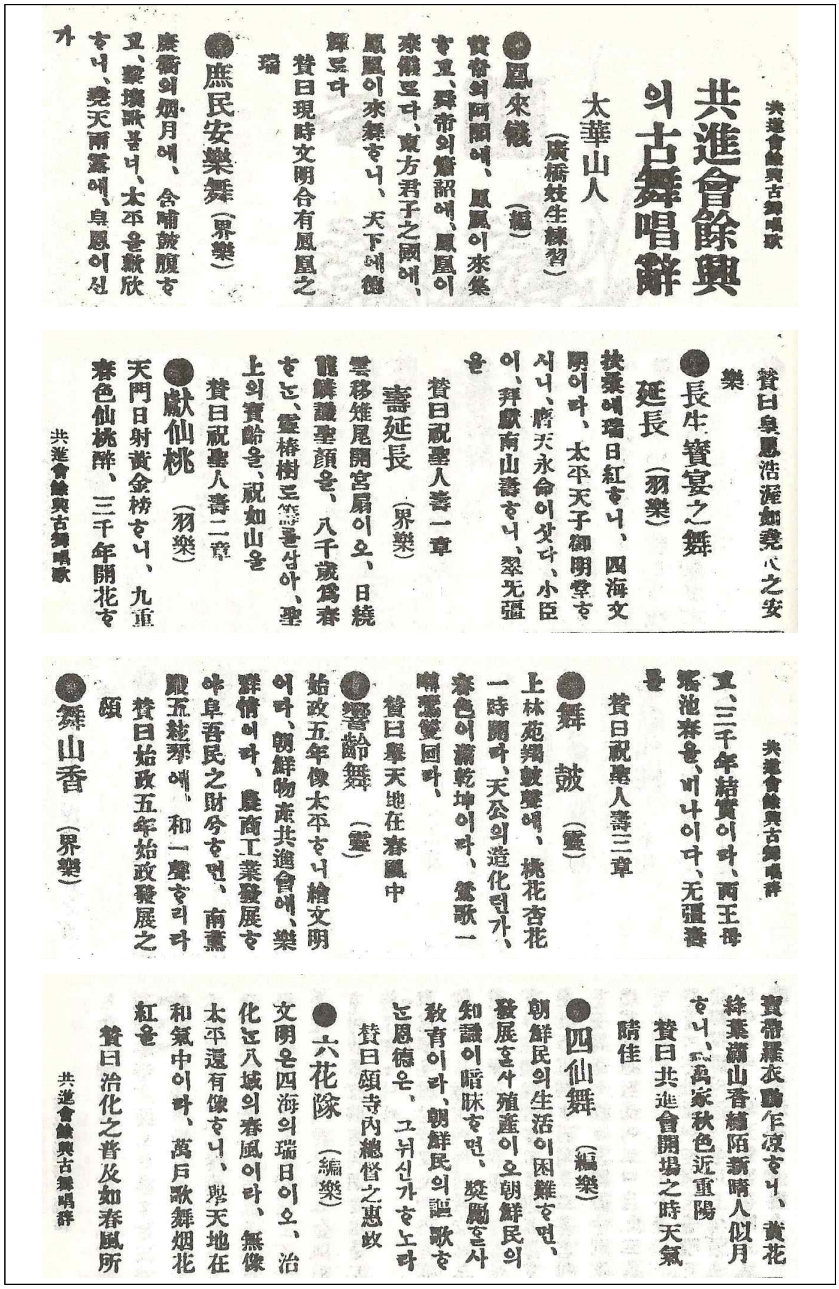
진회 이전부터 근대 박람회에서 기생은 흥행몰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07년 경성박람회를 비롯하여 일제 강점기에 개최된 각종 박람회 및 공진회에서 기생들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그들의 여흥을 돋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 기생들이 전국 각지의 공진회와 박람회에서 가무를 공연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15] 근대 박람회에서 기생은 당대 주목받는 연예인과 같은 존재로 관람객을 동원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따라서 공진회 기념호였던 『신문계』 역시 기생의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기생이 공연하는 정재의 창사를 수록했던 것이다.

『신문계』에 실린 기생 관련 기사 중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92면부터 95면에 걸쳐 상단에 수록된 「共進會 餘興의 古舞唱詞」이다. 창사 소개에 앞서 괄호 속에 '廣橋妓生鍊習'이라고 밝혀 두고 있다. 즉, 광교기생조합이 공진회 관람객들에게 여흥을 베풀기 위해 연습하였던 정재 창사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문계』가 월간지로 간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잡지가 발간되기 한 달 전, 즉 1915년 8월부터 광교기생조합은 이 새로운 창사로 연습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잡지가 간행되고 공진회가 시작되었던 1915년 9월부터 공진회가 끝났던 10월 말까지는 이 창사로 공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여기 수록된 창사는 일제 강점기 공진회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행사에서 실제로 연행되었던 광교기생조합의 정재 창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록된 작품은 〈봉래의〉, 〈서민안락무〉, 〈장생보연지무〉, 〈수연장〉, 〈헌선도〉, 〈무고〉, 〈향령무〉, 〈무산향〉, 〈사선무〉, 〈육화대〉 등 모두 10편이다.[16]

---

15) 진남포에서 개최한 '셔션물산공진회'에는 평양, 경성, 진주, 선천 각처의 기생들이 모여와 최상풍류의 여흥을 행하였다고 한다. 이 기생단 일행은 평양에서 개최한 '싱산품평회'에서 공연을 마친 후 당일 저녁 기차를 타고 진남포로 온 것이라고 한다. 정거장에 내리는 즉시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인력거를 타고 공연을 했다고 한다. 「西鮮共進會와 妓生團」, 『매일신보』, 1913.11.8.

16)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문계』는 글자가 번져서 선명하지 않다. 이에 원문 해독부터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산대 한문학과 김승룡 선생님께서 한자를 판독하고 번역도 해 주셨다. 보다 정확하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신 김승룡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共進會餘興古舞唱歌

共進會餘興의 古舞唱辭

太華山人

(廣橋妓生練習)

●鳳來儀 (編)

黃帝의 阿閣에、鳳凰이 來集ᄒᆞ고、舜帝의 簫韶에、鳳凰이 來儀ᄒᆞ다、東方君子之國에、鳳凰이 來舞ᄒᆞ니、天下에 德輝ᄒᆞ다

贊曰現時文明合有鳳凰之瑞

●庶民安樂舞 (界樂)

康衢의 烟月에、含哺鼓腹ᄒᆞ고、擊壤歌ᄇᆞᆯ니、太平을 歡欣ᄒᆞ니、堯天雨露에、皇恩이 신가

贊曰皇恩浩渥如堯天之安樂

●長生寶宴之舞

延長 (羽樂)

扶桑에 瑞日紅ᄒᆞ니、四海文明이라、太平天子御明堂ᄒᆞ시니、膺天永命이 ᄉᆞᆺ다、小臣이、拜獻南山壽ᄒᆞ니、翠无疆을

贊曰祝聖人壽一章

壽延長 (界樂)

雲移雉尾開宮扇이오、日繞龍鱗識聖顏을、八千歲爲春ᄒᆞᄂᆞᆫ、靈椿樹ᄅᆞ 等을 삼아、聖上의 寶齡을、祝如山을

贊曰祝聖人壽二章

●獻仙桃 (羽樂)

天門日射黃金榜ᄒᆞ니、九重春色仙桃醉、三千年開花ᄒᆞ고、三千年結實이라、西王母瑤池春을、비나이다、无疆壽를

共進會餘興古舞唱歌

贊曰祝聖人壽三章

●舞鼓 (靈)

上林苑羯鼓聲에、桃花杏花一時開라、天公의 造化ᄅᆞᆫ가、春色이 滿乾坤이라、鶯歌一囀鶯雙回라、

贊曰擧天地在春風中

●響齡舞 (靈)

始政五年像太平ᄒᆞ니 繪文明이라、朝鮮物産共進會에、樂群情이라、農商工業發展ᄒᆞ야 阜吾民之財兮ᄒᆞ면、南薰殿五絃琴에、和一聲ᄒᆞ리라

贊曰始政五年始政發展之頌

●舞山香 (界樂)

寶帶羅衣動乍凉ᄒᆞ니、黃花絳葉滿山香繡陌新晴人似月ᄒᆞ니、萬家秋色近重陽

贊曰共進會開場之時天氣晴佳

●四仙舞 (編樂)

朝鮮民의 生活이 困難ᄒᆞ면、發展ᄒᆞᆯ사 殖産이오 朝鮮民의 知識이 暗昧ᄒᆞ면、獎勵ᄒᆞᆯ사 敎育이라、朝鮮民의 謳歌ᄒᆞᄂᆞᆫ 恩德은、그 뉘신가ᄒᆞ노라

贊曰頌寺內總督之惠政

●六花隊 (編樂)

文明은 四海의 瑞日이오、治化ᄂᆞᆫ 八域의 春風이라、無像太平還有像ᄒᆞ니、擧天地在和氣中이라、萬戶歌舞烟花紅을

贊曰治化之普及如春風所

共進會餘興古舞唱辭

【그림 1】太華山人의「共進會餘興의 古舞唱辭」

2) 太華山人의 정체

앞서 소개한 「共進會 餘興의 古舞唱詞」 기사의 작성자는 '太華山人'이다. '태화산인'이라는 필명은 최영년(崔永年, 1859-1935)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몇몇 연구자는 그의 아들 최찬식(崔瓚植, 1881-1951)의 필명으로 보기도 한다. 최영년은 『海東竹枝』의 저자로 주로 '梅下山人, 紫霞山人'이라는 호를 썼고, 그의 장남인 최찬식은 신소설 작가로 '海東樵人, 海東山人'이라는 호를 썼다. 두 사람 모두 당대 이름난 문인이었고, 『신문계』의 집필진으로 활동하였다. 태화산은 경기도 광주의 명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경기도 광주 출생이다. '태화산인'은 아마도 그들의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필명이라고 보이는데, 부자지간이기에 지명만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태화산인의 정체에 관해 최영년과 최찬식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태화산인을 최영년이라고 보는 것은 증언을 통한 고증에서 시작되어 신뢰를 얻었다. 진동혁은 태화산인의 단편소설 『友誼』를 해제하면서 태화산인의 제자였던 한학자 김관호를 만나서 그의 증언에 따라 태화산인을 최영년이라고 보았다. 김관호는 그의 나이 20세이던 1924년에 태화산인을 처음 만났고 그에게 한학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태화산인은 당대를 대표하던 한학자이며 한시 작가였던 최영년의 필명이라고 일러주었다고 한다.[18] 이러한 견해는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이어져 통설로 받아들여져 왔다.[19] 한기형은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신문계』에 태화산인의 필명으로 나온 기사들이 "두드러진 한문투를 구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태화산인은 최영년이 한시 이외의 글을 기고할 때 사용한 필명"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20]

그러나 최원식은 "한시인으로 행세한 그[최영년]가 이 시기에 갑자기 한글

17) 태화산인・현상윤・김동인 저, 『김동인, 현상윤, 태화산인의 소설 전집』, 창비, 2018.
18) 진동혁, 「태화산인 최영년의 소설 〈우의〉」, 『국어국문학』 제99호, 국어국문학회, 1988, 379-380면.
19) 김복순,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0, 238면; 이상원, 「최영년의 고시조 연구와 그 의의」, 『한국언어문학』 제5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83-84면.
20) 한기형, 앞의 글, 246면.

단편[『友誼』 지칭]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점에서 최찬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21]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그리고 최근 김홍련은 『신문계』와 『반도시론』에 태화산인 필명의 과학 기사가 많다는 점과, 『신문계』내에서 목차와 실제 기사를 비교해 보니 태화산인과 해동초인이 착종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그림 2-3】 참조), 그리고 태화산인의 단편소설 『옹두의 춘가』가 최찬식의 『백장홍』과 같은 한문 소설이라는 점에서 볼 때, 태화산인은 최찬식의 필명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22] 김홍련의 견해는 문헌에 나와 있는 '태화산인'의 기사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 주목할 만하다. 실제 『신문계』에서 '태화산인'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기사 중 최찬식의 필명인 '해동초인'과 착종되어 나타난 것이 3편이나 된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편집상의 문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김홍련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惠澤을交換ᄒᆞᄂᆞᆫ動植物

太華山人

【그림 2】『신문계』 제2권 3호, 1914.3. 기사


新文界第貳卷第參號目次

◎洛東江 ◎大邱達城山에學生國旗運動
◎慶州瞻星臺 ◎大邱公立普通學校
◎水原訪花隨柳亭及青年會學生遠足會

◎卷頭
◎惜寸陰說
△北極探檢
◎惠澤을交換ᄒᆞᄂᆞᆫ動植物
◎酸素應用의新發明

海東椎人

【그림 3】『신문계』 제2권 3호, 1914.3. 목차

21) 최원식, 「1910년대 친일문학의 근대성」, 『아시아문화』 제14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76면.
22) 김홍련, 「최찬식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9, 20면.

『신문계』에 태화산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기사는 과학 관련 기사 17편, 음악 관련 기사 3편, 소설이 2편, 미술 전람회 감상문 1편이 있다.[23] 즉 태화산인은 단편 소설이나 노래 가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문학적 역량이 뛰어났으며[24] 풍부한 과학적 지식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화산인 이름으로 발표된 기사 중 주목할 부분은 과학 관련 기사이다. '태화산인'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기사의 대부분이 과학 지식을 소개하는 기사이기 때문이다.[25] 과학 관련 기사란 「礦物 : 日用ᄒᆞᄂᆞᆫ 石油ᄂᆞᆫ 吾人의 幸福」(1913. 4.), 「活動寫眞의 學術上 必要」(1914. 4.)와 같이 신지식이나 신문물을 소개하는 하는 것들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태화산인은 한학자, 한시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최영년보다, 신소설로 이름이 높았던 최찬식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실제로 『신문계』에서 최찬식이 과학 분야의 기사를 다수 작성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태화산인은 신지식을 겸비한 최찬식일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진다.

음악 관련 기사는 본고에서 다루는 「공진회 여흥의 고무창사」와 「新作唱歌: 蓮」(1913. 8.)와 「新作唱歌: 勤」(1913. 9.)이 존재한다. 전자가 전통에 기반한 정재 창사라면, 후자는 당대의 신문화인 창가로서 태화산인이 음악적 식견의 편폭이 넓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최찬식은 가집 『양춘집』의 편찬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26] 『양춘집』은 1916년 단오를 맞이하여 양기 왕성한 계절의 흥취를 즐기기 위해 엮은 것으로 시조 30수와 장가 3편이 들어 있다. 최찬식 자신의 자작시를 포함하여 『신문계』를 통해 인연을 맺고 있던 지인들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공진회 여흥의 고무창사」 속 작품이 대부분 시조창 사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양춘집』 수록 작품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역시 태화산인이 최찬식일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

23) 김홍련은 태화산인의 「신작 창가: 련」을 누락하였기에 이를 추가하여 3편으로 계수하였다.
24) 단편 소설 『우의』(1915. 1.)는 한글 사용이 두드러지고 『甕頭의 春歌』(1917. 2.)에서는 한자 사용이 두드러져 보인다. 감상문은 조선신문사에서 주최한 동양미술전람회를 다녀와 쓴 글인데, 최영년이 조선신문사의 주필로 활동하였으며, 최찬식의 동생이 1910년부터 1916년까지 편집장을 맡았다.
25) 해동초인과 착종된 것이 2편 더 있다. 이를 모두 태화산인의 기사라고 본다면 무려 19편이나 된다.
26) 강혜정, 「『양춘집』을 통해 본 1910년대 시조의 창작 향유 양상」, 『시조학논총』 제52집, 한국시조학회, 2020 참고.

조선 왕실은 나라를 건국하고 예악을 정비하기 위해 대규모의 악장을 새로 마련하였다. 또한 연향을 한 번 개최할 때마다, 그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새로운 악장을 창작했다.[27] 악장을 짓기 위해서는 궁중 행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했고, 동시에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했기에, 나라의 공적인 문장을 전담하는 예문관에서 담당하였다. 특히 예문관의 수장 대제학이 이런 업무를 맡았는데, 문장과 덕망으로 온 나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명예로운 자리였다.[28] 일제 강점기는 느닷없이 송축의 대상이 바뀌고, 연행의 목적이 달라지며 새로운 정재 악장이 필요한 시기였다. 특히 일제의 시정 오년을 기념하기 위해 데라우찌 총독이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공식적인 행사에서 부를 창사 제작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당시의 큰 관심사였을 것이다. 공진회에 깔려 있는 일제의 정치적 의도를 이해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할 수 있는 친일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재라는 전통 고급 예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정재 창사를 창작할 수 있을 만큼 문학적 음악적 역량도 뛰어난 인물이라야 가능했을 것이다. 태화산인이 바로 이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로 평가받았던 것이다.

3. 광교기생조합 공진회 정재 창사의 특성

1) 창사

「공진회 여흥의 고무창사」에는 〈봉래의〉를 포함한 10편의 '정재명'과, 그에 해당하는 '唱詞'가 제시된 후 '贊曰'이라는 한 줄이 덧붙어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庶民安樂舞〉이다. 〈서민안락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통 정재명인데, 〈서민안락무〉는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서민안락무〉는 1912년 4월 단성사에서 강선루 일행이 처음 공연했던 것으로 당시 "성대태평의 긔상을 자랑ᄒᆞᆯ 쓴 안이라 그 청아ᄒᆞᆫ 가곡과 반선ᄒᆞᆫ 춤 쟝단은 가히 관람쟈의 심신을 화열케"[29]하였다며 호평받았다. 이 춤은 〈안락

27) 신경숙, 「궁중 연향에 울려퍼진 노래들」,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글항아리, 2013, 173면.
28) 같은 글, 177면.

무〉, 〈승선안락무〉, 〈서민안락〉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1924년까지 공연된 기생의 창작춤으로 알려져 있다.[30] 초연 이후 10년이 넘게 전승되었지만, 죽간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궁중무 양식의 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될 뿐[31], 그 이상 알려진 게 없었다.

『신문계』를 통해 명칭으로만 존재하던 〈서민안락무〉의 창사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이 창사가 1912년 단성사에서 공연되었던 〈서민안락무〉의 창사와 동일하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신문계』에 전하는 나머지 창사를 볼 때, 전통 정재의 명칭을 달고 있지만, 그 창사를 계승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헌선도〉, 〈수연장〉, 〈무고〉는 고려 때부터 전해지던 것이고, 〈봉래의〉, 〈육화대〉는 선초에 그리고 〈무산향〉, 〈사선무〉,〈향령무〉, 〈장생보연지무〉는 19세기 초반 순조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9종목은 모두 癸巳(1893)년에 간행된 『정재무도홀기』에 전하며, 辛丑(1901)년 『여령각정재무도홀기』에도 전하고 있다. 1913년 9월 덕수궁에서 열린 고종탄신기념 행사에서도 〈무고〉, 〈장생보연지무〉, 〈향령〉,〈헌선도〉, 〈수연장〉의 5종목이 공연되었다. 즉 『신문계』에 소개된 9개 정재 종목은 조선 시대부터 왕궁에서 연행되며 전해 온 전통 정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창사의 실질은 전혀 다르다. 먼저 〈서민안락무〉의 창사부터 살펴보자.

〈庶民安樂舞〉 (界樂)
康衢의 烟月에 含哺鼓腹ᄒᆞ고
擊壤歌불너 太平을 歡欣ᄒᆞ니
堯天雨露에 皇恩이신가
　贊曰皇恩浩渥如堯代之安樂

'서민들의 안락함을 노래'한다는 제목에 걸맞게, '康衢煙月, 含哺鼓腹, 擊壤歌' 등의 한자어를 활용하여 서민들이 살기에 안락한 세상임을 노래하고 있

29) 『매일신보』, 1912.4.30.
30) 김영희, 「일제강점기 초반 기생의 창작춤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제33집, 한국음악사학회, 2004, 207-208면.
31) 김영희, 『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기생』, 민속원, 2006, 66면.

다. 초장과 중장에서 안개 은은한 달빛 내린 큰길에서, 실컷 먹다가 배를 쓰다듬고 격양가를 불러 태평성세를 기뻐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친숙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태평성세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상투적이고 진부해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이 관람객이 된 연행 공간에서는 오히려 난해한 표현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요 임금 때와 같은 성세에 황상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린다고 하며, 이러한 태평성세를 만들어낸 '皇'을 칭송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이어지는 '찬왈'에서도 "황상의 은혜로 무젖기가 흡사 요 임금 시절의 안락함과 같다"고 하여 서민의 안락함이 황상의 덕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로 정재 창사에서 '황상'을 칭송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었다. '皇'이라는 동일한 글자가 사용되었지만, 경술국치를 전후로 그 글자가 지칭하는 대상이 바뀌며 정재의 의미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四仙舞〉(編樂) :『신문계』
朝鮮民의 生活이 困難ᄒᆞ면 發展ᄒᆞᆯ사 殖産이오
朝鮮民의 知識이 暗昧ᄒᆞ면 奬勵ᄒᆞᆯ사 教育이라
朝鮮民의 謳歌ᄒᆞᄂᆞᆫ 恩德은 그 뉘신가 ᄒᆞ노라
贊曰頌寺內總督之惠政

〈사선무〉에서는 조선민의 생활이 곤란하면 식산을 발전시키고, 조선민의 지식이 우둔하면 교육을 장려하라고 노래한다. 식산과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근대 계몽기 시가와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작품이 전하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 '殖産'(생산물을 늘림)은 일제가 조선물산공진회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다. 일제의 통치를 통해 농업이나 광업과 같은 분야의 산업에서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보여주고, 이러한 변화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지역별로 전시관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식산'은 '조선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제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교육' 역시 조선인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지배 즉 천황과 총독의

지도력을 미화시켜서 그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 따름이다.

종장에 이르러서 조선민이 노래하는 은덕이 그 누구이냐고 묻고는 '찬왈'을 통해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는다. '찬왈'에서는 "데라우치 총독(寺內總督)의 은혜로운 정치를 송축한다."고 하여 조선민이 노래로 송축하는 대상이 데라우치 총독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데라우치 마시타케(寺內正毅, 1852-1919)는 1910년 3대 통감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성사시켜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삼고 초대 총독이 되었던 인물이다. 총독 취임식에서는 "이제부터 조선인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한다."[32]고 하며 무단정치를 일삼았던 인물이다. 광교조합의 〈사선무〉는 조선총독부 덕분에 산업이 발전했으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총독의 '恩德'덕분이라고 하여 노래를 통해 '공진회' 개최의 취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四仙舞〉 元舞唱詞 (編) : 『정재무도홀기』

어와 盛代로다. 海東今日 盛代로다 羅代에 노든 四仙이 이제 와 다시 노니

蓬萊로 오시는가 瀛洲로 오시는가 玉帝게 命을 바다 聖主게 壽를 빌냐 鰲帶로 조ᄎᆞ와셔 鳳闕에 朝賀ᄒᆞ니 北極 빗난 별을 玉爵에 더으고져 太平으로 꾸민 氣像 오날 와 보단 말가 南山高 漢水長이 皇都에 근본이니 千秋萬歲 이져곰 無疆ᄒᆞ다 慶豊圖 國上瑞를 다시곰 비옵노니 春臺玉燭에 萬物이 蘇彙로다 東岳을 向ᄒᆞ올가 西岳을 向ᄒᆞ올가 南岳을 向ᄒᆞ올가 北岳을 向ᄒᆞ올가 中岳 놉흔 뫼이 三角이 아니ᄂᆞᆫ가 萬年鎭國ᄒᆞ야 帝業이 되시거다. 어와 우리들은 中嶽에 노라옵ᄌᆞ 三角山 上上峰에 瑞雲이 蔥鬱ᄒᆞ니 金闕玉殿에 黼座가 빗ᄂᆞ세라 王母夫人 靑鳥ㅣ 몬져 와 젼헌 말이 千歲蟠桃를 ᄒᆞ마ᄒᆞ야 드리리라 笙簫 仙樂으로 獻天壽 노래ᄒᆞ니 瑤池에 츄든 춤을 예와 다시 츄엇거다 비로니 海屋籌에 萬歲를 더으고져 萬歲를 더은 후에

億萬歲 더으고죠 億萬年 長春으로 太平을 즐기놋다

본래 〈사선무〉는 효명세자가 만들어 순조대 처음 연행된 향악정재로 그 창사는 『정재무도홀기』에 전한다.[33] 원무창사는 "어와 盛大로다 東海今日 盛大로다"로 시작되어, "羅代에 노든 四仙이 이제와 다시 노니"라고 할 만큼 당

32) 민족문제연구소,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민족문제연구소, 2001, 71면.

33) 기축년(1829)『진찬의궤』에서 〈사선무〉에 대해 "효명세자가 만들었으나 창사에 한글이 섞여 있어서 수록하지 않는다[此以下, 唱詞睿製, 而眞諺相雜, 故不載.]"고 하며 제목만 전하고 있다.

대가 태평성대임을 노래하던 작품이다. 여기서 말하는 四仙은 영랑, 술랑, 안상, 남석행 등으로 수려한 산수를 찾아 다녔던 신라시대의 화랑을 말한다. 신라의 화랑들이 다시 찾아와서 노닐 만큼 평화로운 시대임을 노래하여 궁극적으로 이러한 태평성대를 이룩한 순조의 덕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사선무〉 창사와 『신문계』의 〈사선무〉 창사는 그 길이나 내용은 물론 사용된 어휘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전통적인 〈사선무〉에서는 순조 임금의 덕을 노래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했지만, 『신문계』는 데라우치 총독의 덕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의 임금을 송축하던 정재 창사가 일본인 총독을 송축하는 것으로 개작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태화산인이 굳이 각 창사 뒤에 '贊曰'을 붙여둔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찬왈'을 통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고, 신작 창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10편에 달린 '찬왈'을 통해 신작 창사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신문계』 소재 정재 창사의 '贊曰'

	정재명	贊曰	번역
1	봉래의	現時文明合有鳳凰之瑞	지금 시대의 문명은 봉황의 상서로움이 나타남이 합당하도다.
2	서민안락무	皇恩浩渥如堯代之安樂	황상의 은혜로 무젖기가 흡사 요임금 시절 안락함과 같다.
3	장생보연지무	祝聖人壽一章	성인을 축수하는 노래 제1장이다.
4	수연장	祝聖人壽二章	성인을 축수하는 노래 제2장이다.
5	헌선도	祝聖人壽三章	성인을 축수하는 노래 제3장이다.
6	무고	擧天地在春風中	모든 천지가 봄바람 속에 있도다.
7	향령무	始政五年始政發展之頌	시정 5년, 시정 발전을 송축하도다.
8	무산향	共進會開場之時天氣晴佳	공진회가 개장하였을 때 천기가 맑고 아름다웠다.
9	사선무	頌寺內總督之惠政	데라우치 총독의 은혜로운 정치를 송축하도다.
10	육화대	治化之普及如春風所	치화가 널리 미치는 것이 마치 봄바람에 실린 듯하다.

〈봉래의〉와 〈서민안락무〉로 태평성세를 칭송하고, 〈장생보연지무〉, 〈수연장〉, 〈헌선도〉로 천황을 축수하고, 〈무고〉로 태평성세를 노래하고, 〈향령무〉와 〈무산향〉에서는 공진회를, 〈사선무〉에서는 데라우치 총독을 송축하고 〈육화대〉 다시 태평성세를 노래하고 있다. 마치 10편이 하나의 잘 짜여진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 조선이 태평성세라는 것을 시작과 끝에 두고, 그 가운데에서 천황과 총독을 송축하고 그들의 행사인 공진회를 찬양하고 있다. 천황을 축수하기 위해 〈장생보연지무〉와 〈수연장〉과 〈헌선도〉를 하나의 작품으로 묶은 흔적도 발견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광교조합의 창사를 개작한 의도는 변명의 여지 없이 분명하다. 임종국은 "주체적 조건을 몰각한 맹목적 사대주의적 일본의 예찬추종을 내용으로 하는 문학"을 '친일문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34] 위의 10편은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고, 일본을 예찬하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친일문학이다.

1915년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에서 가창되었던 광교조합의 정재창사 10편은 모두 제목을 통해 왕실 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것처럼 외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전통을 훼손하고 왜곡하여 친일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다. 다만, 이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봉래의〉, 〈서민안락무〉, 〈무고〉, 〈육화대〉는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고 태평성세로 호도하고 있으며, 〈사선무〉, 〈향령무〉, 〈무산향〉은 공진회를 둘러싼 일제의 정치적 욕망을 노래하고, 〈장생보연지무〉, 〈수연장〉, 〈헌선도〉는 천황에게 아유(阿諛)하는 등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을 따름이다.

물론 국권 상실로 인해 황제임을 선포했던 조선 황실은 이왕가로 몰락했고, 기생들은 일본 경시청의 관할 하에 있었고, 공진회는 일제가 공들여 계획된 거국적 행사였으며, 『신문계』를 비롯한 언론 역시 일제의 검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석상에서 부르는 노래에 친일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질된 창사를 볼 때, 태화산인의 친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친일을 표명하기 위해 적극적이며 주도면밀하게 창사를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34) 임종국 저, 『친일문학론』, 이건제 교주, 민족문제연구소, 2019, 22면.

2) 음악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광교기생조합의 공진회 정재 창사는 친일의 내용을 담기 위해 기존 전통 창사와 무관하게 새로 창작된 것이다. 이렇게 창사의 내용은 전례 없던 새로운 것이지만, 신작 창사는 한결같이 3행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시조창 사설처럼 종장 마지막 구가 생략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六花隊〉(編樂)
文明은 四海의 瑞日이오 治化ᄂᆞᆫ 八域의 春風이라
無像太平還有像ᄒᆞ니 擧天地在和氣中이라
萬戶歌舞烟花紅을
　贊曰治化之普及如春風所[35]

위의 작품은 10번째로 인용된 〈육화대〉이다. 3행이 "만호가무연화홍을"로 마치고 있어 서술어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도적으로 서술어가 생략되어 시조창 사설인 것 같지만, 제목 옆에는 '편락'이라고 하여 가곡창의 악곡명이 기록되어 있다. 앞서 살펴 보았던 〈서민안락무〉도 마찬가지이다. "요천우로에 황은이신가"로 마치지만 '계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가곡창의 악곡명을 기록하고 그 사설은 시조창 형식을 취하고 있어 당혹스럽다. 이는 아마도 태화산인이 시조창과 가곡창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여겼던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時調ᄂᆞᆫ 歌曲과 同一ᄒᆞᆫ 腔調이로ᄃᆡ 長短과 唱調가 歌曲의 太緩홈과 不同홈으로 曰 時調라 홈이니"[36]라고 한 바 있다. 즉, 가곡과 시조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腔調이되, 다만 장단의 빠르기가 다르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태화산인은 10편의 작품에 대해 각 작품을 어떤 악곡으로 불러야 하는지 정해 두었다.

---

35) 문명은 사해를 비추는 상서로운 햇빛이요, 치화는 팔역에 부는 봄바람이라. 태평 형상 없는 속에 도리어 태평 형상이 있나니, 모든 천지가 화해로운 기운 속에 있어라. 집집마다 붉은 봄꽃을 노래하고 춤추네 / 찬하여 말하기를 " 치화가 널리 미치는 것이 마치 봄바람에 실린 듯하다."
36) 태화산인, 「고금가요의 연혁」, 『조선문예』 제1호, 조선문예사, 1917.4., 54면.

〈봉래의〉 編 /〈서민안락무〉 界樂 / 〈장생보연지무〉 羽樂 / 〈수연장〉 界樂 / 〈헌선도〉 羽樂 /〈무고〉 靈 / 〈향령무〉 靈 / 〈무산향〉 界樂 / 〈사선무〉 編樂 / 〈육화대〉 編樂

〈무고〉와 〈향령무〉를 제외한 8작품의 악곡명은 '편(1), 계락(3), 우락(2), 편락(2)'으로 모두 가곡창의 악곡으로 부른다고 되어 있다. 신경숙에 의하면, 가곡이 궁중 악장으로 유입된 시기는 19세기 초반이다. 순조대 효명세자에 의해 창작된 정재 중 다수가 가곡 선율을 차용하였으며, 민간 가객이 궁중 연회에 참여한 기록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37] 19세기 초반 궁중 정재에 유입된 가곡 선율을 20세기 초반 광교기생조합은 전면적으로 취했던 것이다. 정악을 장기로 삼았던 京妓들이 모여 구성된 광교조합의 정재에서 가곡 선율을 적극적으로 취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하지만 1914년에 『신구잡가』, 『조선속곡집』 등 4종류의 활자본 잡가집이 간행되고, 1915년에도 『정정증보신구잡가』 등 4종류의 잡가집이 간행되며 당대 잡가가 대중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가곡만을 고집한 것은 자칫 관객의 등을 돌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패 기생 집단인 광교조합은 예술적 품격이 높은 가곡 선율만을 취하였다. 여기에는 관기로서의 자부심을 이어가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대부들의 풍류방과 궁중에서 사랑받았던 가곡을 통해 전 시대의 예술적 정통성을 이어가며, 최고의 예술로 인정받아 온 정재와 가곡의 연행자로서 통해 당대 최고의 예능인으로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갖고자 했던 조합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무고〉와 〈향령무〉의 악곡명으로 제시된 '靈'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다. 현재 '영'으로 부르는 성악곡이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靈山會上'의 '靈'과 그 글자가 같아서 혹시 '영산회상'과 관련된 음악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기악곡이라는 점에서 〈영산회상〉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영산회상〉은 궁중 의식에서는 대규모의 관현악과 성악으로 연주되었

37) 신경숙, 『조선후기 시가사와 가곡 연행』,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 92-109면.

지만, 민간의 풍류방에서는 작은 규모로 연주되었는데, 궁중 의식에서 노래로 불리던 음악에서 가사가 탈락된 채 순수한 기악곡으로 전승되었다.[38] 따라서 이를 성악곡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하지만 〈영산회상〉과 정재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궁중이나 민간에서 활동하던 전문음악인들은 각종 의식의 주악이나 무용반주곡으로 〈영산회상〉을 연주하였는데, 주로 궁중무용의 반주곡으로 연주하던 음악을 〈삼현영산회상〉이라고 한다.[39] 〈영산회상〉은 조선전기부터 정재의 반주곡으로 쓰였고,[40] 20세기 정재 반주 악곡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향당교주'가 바로 〈영산회상〉의 일부분이다. 서한범에 의하면 국립국악원 원로 악사 고 김천흥 외에 봉해룡, 김기수, 박영복, 김태섭 등이 "향당교주라는 음악은 관악영산회상 상령산의 처음 부분, 즉 빈 각 부분만 가락을 넣어 달리하고 나머지는 같게 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한다.[41] 즉 정재의 반주 음악인 향당교주는 영산회상의 변주곡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기악곡과 성악곡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라는 점이 여전히 문제이다. 하지만, 실제 음악가들에게 있어 이러한 구분은 관습일 따름이지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은 아니라고 한다. 2009년 작사가이자 작곡가인 신혜선은 정대석이 1999년 작곡한 거문고 6중주 〈미리내〉의 일부분에 가사를 붙여 성악곡 〈*NEW* 미리내〉를 만들었다. 그리고 2014년 소프라노 임선혜가 노래하여 음반으로 발매한 바 있다.[42] 즉 순수 기악곡인 〈미리내〉가 성악곡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영산회상〉과 정재의 밀접한 관련성를 고려할 때, 『신문계』 창사의 '靈'은 〈영산회상〉의 일부 선율에 맞춰 불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43]

---

38)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180면.
39) 같은 책, 181면.
40) 『악학궤범』 권5에 전하는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의 경우, 靈山會上慢을 연주하면 "영산회상불보살"창사를 한다고 되어 있다. 17세기에 편찬된 『양금신보』에도 "영산회상은 무용 반주에 쓰이기 때문에 거문고 학습자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곡이 아니어서 수록하지 않는다"는 주석이 있다.
41) 서한범, 「처용무 반주 음악의 양상—정재 반주로의 수제천과 관악 상령산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43집, 한국음악사학회, 2009, 199면.
42) 정대석 작곡・신혜선 작사・임선혜 노래, 「뉴미리내」, 동보 정대석의 거문고 세계, https://www.youtube.com/watch?v=MdDzhdflGYg(2020.06.30. 검색).
43) 하지만 본래 악기 선율을 성악으로 매끄럽게 부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靈'으로 노래한

4. 광교기생조합 공진회 정재 창사 발견의 의의

본고에서 소개한 『신문계』 소재 광교기생조합의 공진회 정재 창사는 1910년대 정재 공연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10년대는 관기로 있던 기생들이 궁에서 나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쳐 나갔던 시기이다. 전통 예술인 정재가 대중문화로 자리바꿈하면서 발빠르게 변화해 나갔지만, 자료의 부재로 인해 그 실상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신문계』를 통해 그 실상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경성협찬회보고』와 『매일신보』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본고에서 소개한 10편의 정재 창사는 공진회 기간 중 다음과 같이 공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봉래의(1회) : 10월 31일
② 서민안락무(1회) : 9월 17일
③ 장생보연지무(4회) : 9월 23일, 10월 3일, 10월 13일, 10월 21일
④ 수연장 (4회) : 9월 11일, 9월 29일, 10월 11일, 10월 29일 / 9월 19일 야간, 10월 3일 야간
⑤ 헌선도
⑥ 무고 (4회) : 9월 25일, 10월 5일, 10월 11일, 10월 23일 / 9월 25일 야간, 10월 1일 야간
⑦ 향령무 (2회) : 9월 21일, 10월 7일
⑧ 무산향 (4회) : 9월 21일, 9월 29일, 10월 1일, 10월 15일/ 10월 3일 야간, 10월 7일 야간
⑨ 사선무 (3회) : 9월 11일, 9월 17일, 10월 15일 / 10월 1일 야간
⑩ 육화대 (2회) : 9월 19일, 10월 13일

『신문계』에 수록된 광교기생조합의 창사는 모두 한 정재에 하나의 창사만이 들어 있었다. 전통 정재에서는 한 작품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창사를 부르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는 정재가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대중의 취향을 고려하여 취했던 전략으로 생각된다. 궁중에서 정재는 의례에 수반된 것이었기에 길이가 길어도 괜찮았지만, 극장에서 공연되는 정재는 너무 길게

사례가 여기에서만 발견될 뿐 확산되지 못한 것 역시 기악곡의 선율을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연행하면 관객이 지루해하기에, 창사를 짧게 그리고 횟수도 한 번으로 줄이는 대신 여러 작품을 선보여 변화를 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수 있다. 본래 궁중무는 "공연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었으며, "당시의 예술적 환경을 수용하며 공연"되었던 "살아 있는 연행물"[44]이었다. 만약 그러한 전략이었다면, 이 또한 1910년대의 격변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교조합의 창사는 대부분 가곡의 선율에 얹어 불렀으며, 기존의 창사와 무관하게 새로 창작되었다. 이는 당시 광교기생조합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다동기생조합이 취했던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다동기생조합의 경우, 주로 전통 정재 창사의 일부를 취해서 짜깁기하는 방법을 취했으며, 창사를 부를 때에는 가곡뿐만 아니라 12가사까지 활용하였다.[45]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동시기 활동하였던 두 기생조합이 일반인 관람객의 취향을 고려하여 변화를 꾀하되 그 전략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신문계』 속 창사의 발견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일제 강점기에 정재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다. 『신문계』에 수록된 10 종목의 창사는 한결같이 친일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식민지 상황을 태평성세로 인식하며, 이러한 태평성세를 만든 천황과 총독을 송축하고, 이들이 주관한 공진회를 칭송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창사에는 일제의 정치적 야욕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들은 조선 왕실의 공간이었던 경복궁을 함부로 훼손하여 박람회 장소로 삼고, 바로 그곳에서 조선왕실을 송축하기 위해 연행되었던 정재를 일본 천황과 총독을 위한 것으로 변형시켜 연행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 나라의 권력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춤과 음악과 노래로 선포했던 것이다. 즉 왕실 문화의 상징이었던 정재를 빼앗아서, 강제 병합을 미화하고, 이를 조선인들에게 문화적으로 세뇌시키는 데 사용했던 것이다.

---

44) 김영희, 「이왕직 아악부로 계승된 궁중무」, 『근대궁중무의 계승과 변화』, 보고사, 2007, 250면.
45) 강혜정, 앞의 글, 2019b, 133면.

5. 맺음말

본고는『신문계(新文界)』1915년 9월호에 광교기생조합의 정재 창사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이를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창사의 제작자를 추정한 후, 창사의 내용적 음악적 특성을 분석하고, 본 창사 발견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고려와 조선 시대 궁중에서 공연되었던 정재는 음악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다가 노래하는 歌舞樂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정재 중에 부르는 노랫말(창사)은 춤이나 음악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재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다. 대한제국까지 연행되었던 정재는 경술국치 이후 더 이상 궁에서 연행되지 못했다. 정재를 담당했던 기생들은 기생조합을 결성하고 극장이나 요리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하며 정재는 대중예술로 변화해갔다. 이렇듯 1910년대에는 정재 공연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재사의 공백기로 남아 있었다.

1915년에는 일제의 식민통치5주년을 기념하는 공진회가 50일간 경복궁에서 열렸는데, 광교조합과 다동조합은 번갈아 가며 매일 이곳에서 정재 공연을 하였다. 당시『신문계』는 공진회 기념호를 발간하여 공진회에서 공연하였던 광교기생조합의 정재 창사를 수록하였다. 이 기사의 작성자는 '太華山人'이다. 이는 최영년의 필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찬식일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신문계』에는 총 10종목의 정재 창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새로 지은 것이었다. 창사의 내용을 보면, 당대를 태평성세로 인식하고 일본 천황과 총독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친일 창사는 계락, 우락, 편 등 가곡창의 악곡에 얹어 부르게 하였다. 또한 '靈'으로 부르는 곡도 있는데 이는 〈영산회상〉의 선율에 얹어 부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자료의 발견으로 인해 일제 강점기 정재 창사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그 단면을 파악하고, 대중문화로 변모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꾀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매일신보』, 『신문계』, 『조선문예』.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잔무취급소,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보고』, 동경인쇄주식회사, 1915.

강혜정, 「신자료 『리계향 칙 李桂香 홀긔』의 소지자 이계향에 대하여: 〈춘잉무〉 연행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5권,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험, 2019a, 367-394면.

_____, 「일제 강점기, 전통 정재 창사의 계승과 변용: 박순호 소장 『리계향 칙 李桂香 홀긔』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47집, 한국시가학회, 2019b, 109-138면.

_____, 「『양춘집』을 통해 본 1910년대 시조의 창작 향유 양상」, 『시조학논총』 제52집, 한국시조학회, 2020, 7-31면.

김근수, 『한국잡지 개관 및 호별 목차집』, 한국학연구소, 1988.

김복순,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0.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김영희, 「일제강점기 초반 기생의 창작춤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제33집, 한국음악사학회, 2004, 197-236면.

_____, 『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기생』, 민속원, 2006.

_____, 『근대궁중무의 계승과 변화』, 보고사, 2007.

_____,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의 기생의 춤 공연에 대한 연구」, 『국악원 논문집』 제29집, 국립국악원, 2014, 65-92면.

김홍련, 「최찬식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9.

민족문제연구소,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민족문제연구소, 2001.

서한범, 「처용무 반주 음악의 양상—정재 반주로의 수제천과 관악 상령산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43집, 한국음악사학회, 2009, 187-212면.

송방송, 「1910년대 정재의 전승 양상 : 기생 조합의 정재 공연을 중심으로」, 『국악원 논문집』 제17집, 국립국악원, 2004, 147-185면.

신경숙, 『조선후기 시가사와 가곡 연행』,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

_____,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글항아리, 2013.

_____, 『조선 궁중의 노래, 악장』, 민속원, 2016.

이각규, 『한국의 근대 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이상원, 「최영년의 고시조 연구와 그 의의」, 『한국언어문학』 제5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83-106면.

임미선, 「조선말-일제강점기 궁중 정재의 전승과 재현」, 『국악원 논문집』 제23집, 국립국악원, 2011, 35-62면.

임종국 저, 『친일문학론』, 이건제 교주, 민족문제연구소, 2019.

진동혁, 「태화산인 최영년의 소설 〈우의〉」, 『국어국문학』 제99호, 국어국문학회, 1988, 379-396면.

최원식, 「1910년대 친일문학의 근대성」, 『아시아문화』 제14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61-131면.

한기형, 「무단통치기 문화정책의 성격: 잡지 『신문계』를 통한 사례 분석」,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9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225-256면.

【Abstract】

The Theft of the Jungjae (呈才) Performa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Centered on the Gwangyo (廣橋) Union's 1915 Expo Court Song Lyrics—

Kang, Hye-Jung*

This paper analyzes the Giseng (female entertainer)'s court song lyrics found in *Shin moon gye* (新文界) vol. 6 no. 9 (1915. Sep.). First, the court songs' lyricist must be identified and the musical characteristics must be examined to discover the lyric's true intentions. From the Koryo to the Josun age, the Jungjae (呈才) was originally intended to perform directly for the royal family, acting as the palace's main source of entertainment—the Jungjae is a composite art that instructs to dance with the background instrumentals and sing without. The song lyrics of the Jungjae must be highlighted as they perform a significant role in illustrating the true purpose of the Jungjae. Post annexation, the Jungjae was removed as a court ritual. Thus, the Gisengs assigned to the Jungjae formed a union to continue as a group independent of the royal family. The union now performed for the general public, in places such as the theatre and restaurants. The Jungjae displayed a trend of popularization—entertainment for the ordinary. Considering the stage for the Jungjae suddenly changed drastically, there are reasonable suspicion for changes in the Jungjae performance itself also. However, no records have been discovered that support such a position, leaving a gap in the Jungjae history.

In 1915, the Japanese's celebration of the annexation, known as the '1915 Expo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initiated at the Kyungbok palace (景福宮), which would continue for 50 more days. The Gwangyo (廣橋) union and Dadong (茶洞) union performed the Jungjae at this event on alternating days. At the time, *Shin moon gye* published a special edition magazine dedicated for the 1915 Expo; the author with the pen name 'the man living in the Tae wha mountain (太華山人)' recorded the Gwangyo giseng union's the Jungjae performance lyrics on this magazine. The author is widely accepted as

* Lector,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Korea Univ.

'Choi youngnyun (崔永年)', but we mus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hoi youngnyun's son, Choi chansik (崔瓚植), as a candidate for the true author. In *Shin moon gye*, there is recorded a total of 10 different performances of the Jungjae. Examining the title of each of the Jungjae performances, we can infer that all 10 performances correlated with those originally presented for the royal family. However, the lyrics are different for each of the performances. Thus, we can infer that these lyrics were newly created to perform at the 1915 Expo. The new lyrics acknowledge the current world as the paradise and praised the Japanese King & Chongdok. Additionally, there is a song called 'Young (靈)' which is presumed to be sung along the melody of 'Young San Howi Sang (靈山會上)'. In discovering this record, the paper seeks to unveil why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version of the Jungjae was altered and how the Jungjae changed in accordance with its changing audience.

Keywords: The Gwangyo (廣橋) union, Jungjae (呈才), court song lyrics, *Shin moon gye* (新文界), 1915 Expo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The 1910's,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man living in the Tae wha mountain (太華山人), Choi youngnyun (崔永年), Choi chansik (崔瓚植).

접수일: 2020.06.30. ‖ 심사일: 2020.07.09. ‖ 게재확정일: 2020.08.17.